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대결' 22일 개봉 | 감독 신동엽 | 출연 이주승, 오지호, 이정진 | 97분 | 15세 관람가



취업준비생이 형의 복수를 위해 '갑의 상징'인 게임회사 대표에 맞서는 통쾌한 액션극. 이른바 연애와 결혼 등을 모두 포기한 'N포세대'의 무기력한 청춘이 돈과 권력에 기댄 '갑'의 횡포와 폭력에 기어이 대결을 선언한다. 이주승과 오지호, 이정진과 신정근이 각각 현실을 드러내는 개성 강한 캐릭터로서 영화의 매력을 더한다. 특히 이주승과 오지호가 펼쳐내는 처절한 대결의 장면은 영화의 절정을 이루며 또 다른 메시지의 울림을 안긴다.

●신승훈 소극장 콘서트 '라이브 액추얼리' 10월 14일~30일(금 오후8시·토 오후6시·일 오후5시) | 서울 이화여대 삼성홀



신승훈이 데뷔 26년 만에 처음 벌이는 소극장 공연. 하루 단 700명에 제한 허락된 9번의 스페셜 라이브다. 이번 소극장 공연을 위해 신승훈은 지난 13년 동안 '명품 공연' 평가를 받아온 브랜드 콘서트 '더신승훈쇼'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았다. 화려한 지장은 모두 빼고, 6인조 밴드와 함께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로 감동을 전한다. 데뷔 이래 공연장의 공간은 가장 작지만, 그의 공연 중 가장 긴 여운이 남을 콘서트다. 문의 02-371-8380.

●장혜진 '옥토버 옥테트, 가을 8중주' 10월14일(오후6시)·15일(오후5시) |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 만7세



장혜진의 가을 맞춤형 공연. 장혜진을 주축으로 한국 재즈를 대표하는 윤석철 트리오와 트럼펫 연주자 배선웅 등 8인의 실력과 뮤지션들

이 무대에 오른다. 약 180명만 입장 가능한 소극장 공연인 만큼 장혜진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도심 속 빛나는 가을 음악의 결정체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장혜진은 5월 재즈 뮤지션과 협업한 미니앨범 '소품집'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문의 02-3141-3488.

“윤석화 선생님 데뷔 40주년 선물이죠”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연극 '마스터클래스' 윤정인

수백 회 오페라 무대 오른 성악가…샤론 역으로 연극 첫 무대 잡지 '객석' 객원기자 시절 윤석화와 인연으로 동반출연 결심

“정말 오랜 만이세요.” 그랬다. 세어 보니 7년 만이다. 7년 전 윤정인(35)은 한창 셋별처럼 솟아오르던 한국 오페라계의 보석 같은 소프라노였다. 당시 그는 서울시오페라단이 제작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여주인공인 로지나 역을 맡고 있었다. 7년 만에 재회한 윤정인은 배 나온 기자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교육자, 해설가로도 이름이 높다. 현재 호원대학교 공연예술학부의 초빙교수이기도 하다. 물론 본업인 성악가로서의 활동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KBS 열린음악회에서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는 윤정인을 보고 반가웠던 생각이 난다.

●“무대는 나의 스승”

윤정인에게는 '직함'이 하나 더 생겼다. 10월에 개막하는 연극 '마스터클래스'에서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1923~1977·윤석화 분)의 제자 샤론 역을 맡았다. 성악가 역할이기는 하지만 연극배우로서는 사실상 첫 무대이다. 윤정인의 출연은 윤석화와의 개인적 인연이 큰 계기가 됐다. 20대에 오페라 작품의 주연으로 데뷔한 이후 예술전문잡지 객석의 객원기자로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 이 잡지의 발행인이 윤석화였다. 윤정인은 “이번 출연 결정에는 윤석화 선생님의 데뷔 40주년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다.

마스터클래스는 선생이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수업을 의미한다. 음악(특히 클래식)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수업의 수준도 높다. “연습은 재미있다”고 물으니 윤정인은 “마치 연극의 마스터클래스 같은 분위기”라고 했다. 초짜 배우 윤정인은 연극의 거장 윤석화가 해준 “연기는 진실의 극대화”라는 말을 마음 속 깊이 담아놓고 있었다.

윤정인이 맡은 역할은 세 명의 제자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난 샤론이다.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인물이다. 노래 수업을 잘 받다가 스승 마리아 칼라스에게 비수를 쫓는 말을 남기고 나가 버린다.

윤정인은 마스터클래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고 했다. 마리아 칼라스가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대사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뭘 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노래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운 걸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정인은 “무대가 나의 스승”이라고 했다. 수백 회의 오페라, 콘서트 무대를 경험하며 스스로를 다졌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장해서 기회를 주신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것이 꿈이었다”라며 “요즘은 가끔 내 꿈이 너무 소박한 건가, 더 커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웃었다.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듣고 한 번이라도 감동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취준생처럼 삶의 무게가 버거운 사람들이 이 연극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희망이든 아니든, 분명 뭘가를 갖고 돌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

7년의 ‘꾸준한 성장’이 그의 말에서 촘촘하게 느껴졌다. 윤정인은 스스로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았고, 선택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걸 현명하게 사용한 듯했다. 다음 번 인터뷰는 7년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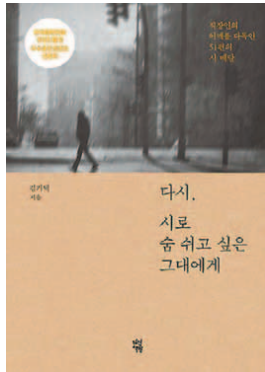
▶7년 전 한국 오페라계의 셋별이었던 소프라노 윤정인은 이제 유명 성악가, 교수, 해설가가 됐고 첫 연극 데뷔까지 앞두고 있다. 전설적인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의 재능있고 도도한 제자 샤론 역을 맡아 무대에 오른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민성

책 읽는 주말

●다시, 시로 숨쉬고 싶은 그대에게 (김기택 저 | 다산책방)



1989년 한국일보로 등단해 ‘태아의 잠’, ‘바늘구멍 속의 폭풍’, ‘사루원’, ‘소’, ‘검’, ‘갈라진다 갈라진다’ 등의 시집으로 세상의 소외된 모든 것들의 목소리와 풍경에 주목해온

김기택 시인이 펴낸 첫 산문집이다.

서튼이 넘어 등단해 시 쓰기와 직장생활을 병행해 온 김기택 시인은 밥벌이에 지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이 땅의 모든 존재에 귀 기울여 왔다. 시인은 언제든지 부르짖고 싶어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고단한 시간들을 위로해준 것은 지금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가려져 있던 빈약하기 짝이 없는 유년시절의 기억이었다고 고백한다.

시인은 “추억이 위로와 평안을 주지만 때로는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시 속에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며 담담히 눌러 적었다. 그의 삶에 무늬진 이야기들은 시를 가슴으로 읽게 해주고,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직장인의 어깨를 다독인 51편의 시 배달’이라는 부제가 책장을 넘기고 싶게 만든다.

●베어지지 않는 나무 (김만옥 저 | 나무)



등단 40주년을 맞은 김만옥 작가의 소설집. ‘회칼’, ‘한 그루 나무’ 등 자전 대표작 7편과 신작 ‘거적때기’를 함께 묶었다. 저자의 40년 작품세계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연

보도 실었다.

김만옥의 작품은 열핏 서늘하게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도 엿볼 수 있다. 수록작 ‘한 그루 나무’(원제 : 그 보통이의 한 그루 나무)’가 대표적이다. 결코 ‘베어지지 않는 나무’같은 숙명에 대한 애착이 작품 면면에 흐른다.

자신의 밥벌이가 오롯이 어머니에게 빚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아들의 애정 어린 발문도 눈길을 끈다. 어머니의 새벽 글쓰기를 보고 자란 아들은 커서 기자가 되었다. 30년 가까이 기록한 ‘사실’들이 어머니가 만들어낸 ‘허구’들보다 더 나은 순 없다고 아들은 썼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눈으로 즐기는 식도락

프랑스 요리는 ‘바베트의 만찬’, 소박한 맛은 ‘리틀 포레스트’

■가을에 볼만한 음식영화

가을에 대한 많은 수식어 중 빠지지 않는 것은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더불어 식욕도 왕성해지는 식도락의 시즌이라는 것이다. 식도락을 즐기는 데는 직접 음식을 마주하는 것도 있지만, 선선한 가을 밤, 음식과 삶을 테마로 삼은 영화로 ‘눈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을에 볼만한 음식영화를 정리했다.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 1987 덴마크)

음식영화의 클래식 반열에 오른 작품. 특히 서양 요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프랑스 요리를 소재로 다룬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다. 평생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죄악시하던 금욕적인 시골 마을사람들이 매추라기, 바다가복, 푸아그라, 송로버섯 등으로 만든 화려한 프랑스 만찬을 생전 처음 만났다. 결과는…? 헌신과 희생,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속에 하나 씩 등장하는 정찬 코스처럼 펼쳐진다. <팁!> 깊이 있는 주제와 해학도 있지만 이야기 호흡이 좀 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살짝 지루할 수 있다.

●줄리 앤 줄리아(Julie & Julia, 2009 미국)

‘바베트의 만찬’과 함께 프랑스 요리영화를 다룬 수작.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유브 갓 메일’의 여성감독 노라 에프린이 메가폰을 잡

았다. 전설적인 프렌치 셰프 줄리아(메릴 스트립)와 그를 동경하던 요리 블로거 줄리아(에이미 아담스). 영화는 다른 시대와 공간에 각자 요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불태우던 두 사람의 모습을 따스한 시선으로 번갈아 다룬다. <팁!> 다양한 요리가 등장하지만 그중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부르고뉴식 소고기 요리 뽕프 부르기뇽이 단연 인생의 요리.

●담뽕(タンポポ, 1986 일본)

먹방과 식도락 콘텐츠에 관련한 일본은 양과 질 모두 세계 정상급이다. 많은 음식영화 중 작품성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영화적 재미만 본다면 단연 최고는 ‘담뽕’이다. 손님이 없어 곧 망하기 직전인 작은 라면집에 찾아온 카우보이 보자를 쓴 트럭 운전수와 조수. 두 사람은 여주인의 딱한 상황을 보고 최고의 라면을 만들 수 있도록 소매를 걷고 나선다. 서부극을 변주한 이야기와 음식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속물근성과 집착을 코믹하게 다룬 에피소드가 날줄과 씨줄로 얹혀 있다. <팁!> 일본의 야쿠쇼 쇼지, ‘인셉션’의 와타나베 겐의 ‘리츠시절’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음식영화지만 노출 장면과 폭력이 좀 있어 가족용으로는 부적절.

●식신(食神: God Of Cookery, 1996 홍콩)

미디어를 통해 스타가 된 ‘쇼셰프’와 레스토랑·음식 비즈니스에 대한 주성치식 풍자. ‘소

림축구’ ‘콩후후술’ 등 무형물의 전통을 다양한 장르와 이종교배시켜 재미를 본 주성치답게 요리영화에 화려한 액션을 넉넉히 섞었다. 잘 나가던 인기 셰프가 제자의 배신으로 한 순간 나라으로 떨어진 뒤, 각성하고 다시 일어서 복수한다는 전형적인 플롯. 음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맛에 대한 탐구보다 매스컴의 노출과 마케팅 전략이 성공의 잣대가 되는 현실을 조소하는 주성치의 시각은 꽤 날이 서 있다. <팁!> 믿고 보는 주성치-오명달 콤비의 슬랩스틱도 재미있지만,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막문위의 망가지는 연기도 볼만하다.

●리틀 포레스트 1,2 (Little Forest 2014, 2015)

영화 팬 사이에 ‘삼시세끼’ 오리지널이란 평가를 들은 작품. 동명 만화를 스크린에 담았다. 실연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여성이 자신이 직접 재배한 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을 담았다. 1편은 여름과 가을, 2편은 겨울과 봄을 담고 있다. 특별한 반전이나 복선도 없고 등장하는 음식도 화려함과는 담을 쌓은 평범한 빵이나 잼, 감주 등. 하지만 ‘살기위해 먹고, 먹기 위해 스스로 만든다’는 테마는 음식이 과시와 욕망의 대상이 된 요즘 세대에 조용하지만 진한 울림을 준다. <팁!> 이야기 구조는 단순해도 아기자기한 악살이 구석구석 있다. ‘악마의 잠’이라 불리는 누텔라 에피소드가 대표적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엄마 아빠 어디가

●육의전 체험축제 (9.24~25, 서울 청계천 광통교 일원(모전교-광교 구간))

종로2가에서 청계천 2가 지역에 있던 조선시대 육의전을 재현한 축제. 2006년부터 종로청계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선시대 육의전 전시 및 시현, 현대육의전 전시 및 시현, 어린이 국악동요 대회 등이 열린다. 24일 첫날에는 전통연희단 예도통천의 길놀이와 사물마당놀이, 무용공연 등이 열린다.

●한국민속촌 사극테마축제 (9.24~11.13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올해로 5회째인 국내 유일의 사극테마 축제.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하거나 주인공으로 분장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사극명장단 패러디’, ‘코믹 관상체험’, ‘장옥정 사약체험’ 등의 인기코너와 함께 올해 ‘대박 투전체험’, ‘육룡이 나르샤 김술체험’, ‘바람의 화원 화공체험’ 등을 새로 추가했다. ‘황진이 기녀되기’·‘구미호 의상체험’, ‘추노 분장체험’도 있다. 주말에는 영화 ‘도둑들’을 패러디한 코믹사극 ‘도적들’을 공연한다.

